오늘부터 초중고 일시적 '등교 중단'

5월 들어 학생 11명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407명
18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이 교육감 "선제적 조치"

이석문 교육감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18일까지 원격수업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5월 들어 계속되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에 학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늘어나면서 제주시 동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원격수업 전환 빈도가 많아지는 등 '불안한 등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교육당국이 확진자 감소와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일시적인 '등교수업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따라 1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동지역 유·초·중학교와 모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65개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방역당국과 교육부, 학교 현장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결정 배경에 대해 지역이 좁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해 학생·지역간 교류가 많은 고등학교에 대해 선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아울러 확진 학생과 자가격리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지역 학교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대책으로 '일시 멈춤'이 필요했음을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이 기간 해당 학교에선 주말과 휴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체육대회 등이 중단된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 1~3학년, 특수학교의 긴급돌봄은 정상 시행된다. 교직원은 정상 근무하되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 근무가 이뤄진다.

읍면지역 학교는 등교수업을 이어가면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발생 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기존 방안이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지역감염 정도를 파악하며 전면 원격수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도민들의 협력이다"면서 "도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내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는 평범한 일상을 맞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들어 발생한 학교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1명(제주시 동지역 고등학생)이다. 자가격리자수는 이달에만 437명(학생 407명, 교직원 30명)으로 제주시 동지역(357명)에 집중돼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근무도, 수당도 내맘대로…

공무원 기강해이 잇따라 도, 이달말까지 특별감찰 "부정 적발시 엄정 처분"

출·퇴근 시간 미준수부터 초과근무 부정수령까지 제주도 공무원의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별감찰'이 실시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 동안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진행한다. 총 4개반·9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찰은 일부 공직자들의 출·퇴근 및 점심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 용무 수행, 무단결근, 초과근무 부정수령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감찰반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출·퇴근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점심시간 탄력운영제 준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민원 유발 사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기강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별감찰에 들어가게 됐다. 결과는 다음달 말 정도에 나올 것"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부당행위 적발시에는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며 "또 고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신분상 처분, 부서장의 연대 책임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전 국장 A(59)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도 A씨를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송은범기자

제주경찰 '음주금지' 코로나 확산세 따라

제주경찰이 오후 9시 이후 직원들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경찰관·의무경찰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과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특별 방역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5인 미만 사적 소모임(직원간은 음주 금지)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이어 경조사 참석이 금지되고 가족간 모임도 가급적 자제를 권고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이나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을 제외한 출장은 금지되며 회의와 행사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방역 관리 기간 중 수칙을 어길 경우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며 "수칙을 제대로 인지해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코로나19 검체 채취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12일 진단검사를 위해 제주보건소를 찾은 한 도민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60~64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60~64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접종 사전 예약은 예약 홈페이지(https://ncvr.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접종 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예약을 하기 어렵다면 자녀 등이 대신 예약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등을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한편 60~64세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되며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병·의원 등 도내 136곳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빈집 잇단 화재, 범인은…

전기레인지 화재 33% 반려동물이 발로 '터치'

반려동물의 작은 발이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를 일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주소방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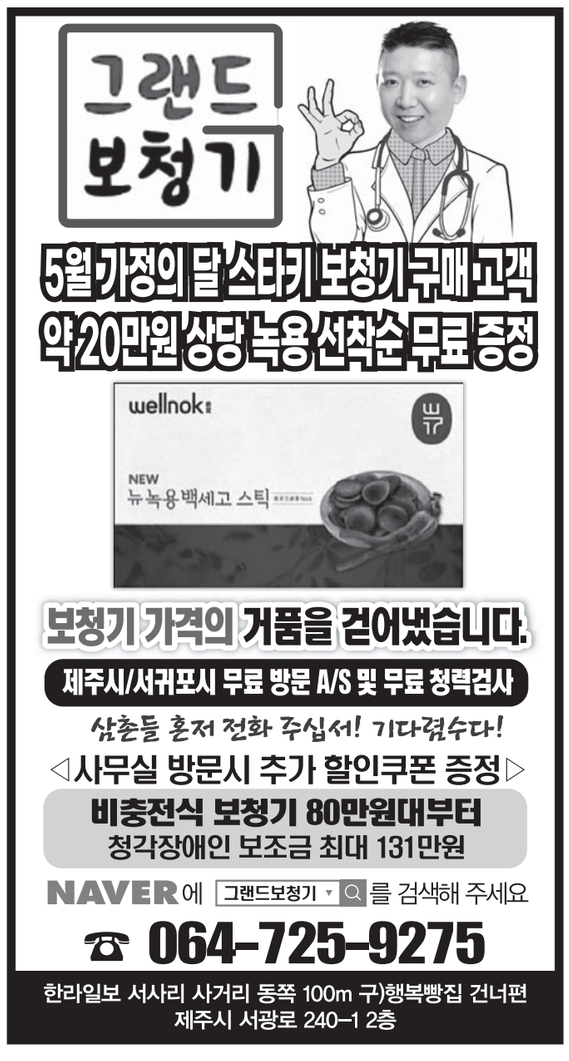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가정내 개·고양이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레인지 화재는 총 24건이며, 이 가운데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가 8건(33%)에 이르는 상황이다.

화재 양상은 혼자 집 안에 있는 반려동물이 먹이가 있는 전기레인지에 올라갔다가 발로 터치식 점화 버튼을 작동시키면서 발생했다. 작동된 전기레인지의 열은 종이나 목재, 봉투 등 주변 인화물질에 발화를 일으켜 화재를 더 크게 키웠다.

실제 지난달 14일 제주시 건입동 음식점에서 고양이가 점화 버튼을 작동하는 바람에 열이 주변 종이와 목재에 옮겨 붙으며 2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소방은 최근 실험을 통해 개와 고양이 발이 실제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 사진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거나 전기레인지 작동버튼을 잠금으로 설정하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또 전기레인지 위에 의류나 상자 같은 화기에 취약한 물건을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